

“ 겸손의 길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과 순종의 덕성으로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순종은 어려운 일이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굴종이나 위선이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됨은 험난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길이다.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뉘으신 주님의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그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한 이들이 질투하며 다투었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겸손은 섬김에 우선된다. 어린아이나 노예처럼 낮아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다. 우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네 개의 짐을 던져버려야 남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

첫째, 교만의 짐(the burden of pride)을 던져 버려라. 겸손은 교만의 반대어다. 우리를 공격해 온 사람에게 우리의 교만한 반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자신을 작은 왕으로 여기고 자신을 우상처럼 왕처럼 처신하고 대해주기를 바라지 않았던가. 자기를 비방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은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교만의 탈을 벗어버릴 때 가능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람 앞에 큰 자로 설 수가 있었다.

둘째, 위선의 짐(the burden of pretense)을 벗어버려라.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있는 것을 숨기려 하는 위선의 짐을 버려야 겸손해진다. 사업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처럼 우쭐거리며 행세하려거나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 지식은 짧고 경험도 미천한 이가 더 많은 교육과 경륜을 쌓은 이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 한다면 꼴불견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인이 못되었으면서 문화인인체 외모를 꾸미고 행세를 하려는 위선자는 겸손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진실이 없고 빈수레처럼 잡소리만 낸다. 자신이 실제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장을 한다. 자신이 정보에 어둡고, 신앙생활 철학도 없는 미숙한 사람, 세련되지 못한 사람 취급받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문제는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우리는 부패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안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될 일도 한다고 핑계를 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참회하고 부복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죄는 다른 사람 앞에 죄를 감추고 목을 곧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올 때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식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될 것이다.

셋째, 인위적인 짐(the burden of artificiality)을 벗어 던지라. 외식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강한 체하는 진실이 결여된 이에겐 겸손이 없다. 인위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한다. 십자가는 사실이다.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속이는 것과 악은 소멸되어야 한다. 진리 앞에 겸손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넷째, 자기 성취를 위한 투쟁의 짐(the burden of self-struggle)을 벗어버려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인정받기 위해 자신과 투쟁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만에서 흘러나온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과는 다르다. 자기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야 겸손해진다. 교만, 위선, 인위적 꾸밈, 자기 성취욕에서 벗어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시작할 때 따르기 어려운 겸손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게 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1344호] 2012년 11월 17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Sally
Hymn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6:1-15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Jesus Feeds the Five Thousand” Pastor
* Hymn 94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마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탕 탕 쥘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썩 잔다 사무 키움 랑 호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토프 수레시 수바브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쯔 수관준 방글라데세, 김택식 윤왕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서 울 교 회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Park, No Cheol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

■ 출 20:1~3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즐겨 사용하시는 이름은 하나님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힘, 권능을 의미하며 언제나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는 자존하시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인 가나안이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없었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식량을 구하려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이후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모든 식구가 애굽 땅 고센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여년의 핍박받는 노예 생활 동안 그들이 애굽을 상대로 저항운동을 했다거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저항과 회생을 치르면서 애굽의 노예신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300여년 동안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직 애굽사람들과 애굽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결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못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급기야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행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말씀하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All mighty God)’ 을 의미합니다.

2.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심을 상기시켜 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노예생활 중 해방을 못보고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망상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심은 그들의 자질과 능력과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므로 실언하심이나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민 23:19).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시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인간에게는 Absolute, 절대적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당위성
 원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비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넌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맺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Egypt)의 풍습을 본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레 18:1-4).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이고, 그러함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어내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서울교회는 참담한 현실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과 관습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서울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서장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송인권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안인호 장로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잡 19:21, 2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5(감사절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9(5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 23:14-19, 인 도 자	요 15:6, 담전 4:15...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맥추감사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주여호와께 보일지니라... (Appear before the Lord God)	이종윤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례 자
* 찬 송 Hymn370(45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3:5-6	인 도 자
찬 송 315(512)	다 함 께
기 도	차영도 집사
성 경 살전 4: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나" ...	설 교 자
* 찬 송 320(35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송금자 권사
성 경 벰전 2:1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나그네와 하나님 영광"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입

1. 스테반회 7월 월례회 / 2일(주) 오후3시20분 101호
2. 비전2020 7월 기도회 / 2일(주) 오후3시20분 802호

◆ 알 릫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1호 예배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5.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6.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7.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9.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0. 의료 상담 / 정철웅(외과), 노선균(흉부외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1.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2. 맥추감사절 /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p> <p>주일예배 시간에는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p> <p>◆ 결 혼</p> <p>1. 진형민 군(11교구 진종훈 집사, 문영희 권사의 장남)과 정소영 양(정광성 성도, 최윤희 권사의 차녀) / 7월8일(토) 오전11시 헤리츠컨벤션 2층 아그니스홀(536-4000) / 7호선 학동역3번 출구, 9호선 언주역3번 출구</p> <p>◆ 장 례</p> <p>1. 故 유흥근 장로(16교구 유남식 집사의 부친, 강은경 권사의 시부) / 6월 30일(금) 별세, 7월 3일(월) 발인</p>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65명	314명	293명	1,472명	162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6/2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 25일	헌금 입금	49,544,500	
"	특별 예배비		1,060,000
"	말씀 봉사비		21,540,000
"	찬양대 사례비		13,150,000
"	교회학교 교육비		2,964,500
"	교회학교 운영비		6,902,850
"	급 여		39,624,000
"	출 판 비		270,000
"	소모품비		265,000
"	통 신 비		636,730
"	차량유지비		3,121,410
"	복리후생비		103,600
"	수도광열비		884,750
"	환경유지비		340,000
"	수선유지비		938,400
"	식당운영비		544,900
"	합 계	49,544,500	92,346,140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웬드벨	송재일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출 20:2-3)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